

조선 후기 경상도 지역에서 제작된 觀經十六觀變相圖와念佛禪

이용윤

I. 머리말

李容胤

佛教文化財研究所
佛教美術研究室長
弘益大學校
美術史學科 博士課程 修了
佛教繪畫史

『觀無量壽經』(이하 『觀經』)은 극락세계를 觀하는 16가지 방법을 설명하는 경전이다. 이 경전은 아미타정토의 구품왕생이라는 정토신앙과 觀法이라는 수행방식을 불러 일으켰다. 唐代 善導(613~681)가 『관경』의 정토장엄을 變相으로 그려 밤낮으로 관상하면 生死罪를 소멸한다고 했듯이 관법수행용으로 관경변상도가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 현전하는 관경변상도는 고려 말 조선 초에 집중되어 있으며, 배경이 되는 觀經序分變相圖보다 16觀相을 형상화한 觀經十六觀變相圖(이하 십육관변상도)가 더 많이 남아있다.¹ 조선시대에 십육관변상도는 16관상이 축소·생략되고 아미타불설법회와 구품왕생이 강조된 형식으로 그려졌다. 불화 조성 목적이 대부분 그러하듯 십육관변상도 역시 畫記에 정토왕생을 기원하는 글이 기록되었다.

* 필자의 최근 논저: 「退雲堂 信謙 佛書와 僧侶門中の 後援」, 『美術史學研究』269, 2011; 「삼세불의 형식과 개념 변화」, 『동악미술사학』, 2008; 「朝鮮後期 三藏菩薩圖와 水陸儀式集」, 『미술자료』제 72·73, 2005; 「華溪寺 觀音殿 地藏三尊圖 研究」, 『미술사연구』18, 2004.

¹ 고려 후기~조선 전기 관경변상도에 관한 논문으로는 유마리, 「麗末鮮初 觀經十六觀變相圖-觀經變相圖의 研究IV」, 『美術史學研究』208(1995), pp.5-37; 김정희, 「1465年 觀經16觀變相圖와 朝鮮初期 王室의 佛事」, 『강좌미술사』19(2002), pp.251-283; 이승희, 「高麗後期 淨土 佛教繪畫의 研究」(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가 있다.

드문 예지만 일본 교토 지온인(知恩院) 소장 〈십육관변상도〉(1465) 화기에는 정토 왕생 기원에 앞서 “大聖圓具念稱者善導九品造畫者頓滅千災”라는 글이 있어 염불과 변상도 조성으로 재앙을 소멸하는 관법수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 『관경』의 16관상을 주제로 한 불화로는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1750), 〈개심사 관경변상도〉(1776), 〈동화사 염불암 구품도〉(1848) 등이 있다. 지금까지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와 〈개심사 관경변상도〉는 고려 말 조선 초 십육관 변상도의 전승과 변형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형식인 〈동화사 염불암 구품도〉는 19세기 간행한 『관경』의 변상도와 관련해 논의되었다.² 그러나 조선 후기 불화와 고려 말 조선 초 십육관변상도 간에 생기는 시간의 간극과, 그 사이에 발생했을 단계적인 변화 과정, 그리고 변화를 유발했던 시각적 動因 요소와 이를 뒷받침했던 정토관에 관한 세부적인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 십육관변상도의 도상 전승, 형식 변화, 16관의 신앙적 특징 등을 경상도에서 제작된 십육관변상도 계열의 목각아미타구품회도, 염불왕첩경도, 극락세계구품회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세 형식은 재료에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 『관경』의 구품왕생을 중심 주제로 한다. 시기적으로는 17세기 후반~19세기 말에 연차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기에 따라 도상의 전승, 변화의 모색, 새로운 형식의 정착 등 일련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도상과 형식의 변화를 유도했던 요인으로는 조선 전기에 간행된 〈勸修淨業往生捷徑圖〉와 조선 후기에 유통된 明代《觀無量壽經變相圖》를 주목해 그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관상수행의 전통을 念佛禪과 연결하여 조선 후기 경상도에서 활동했던 선사들의 염불선과 그 속에 깃든 16관의 성격, 그리고 경상도에서 간행된 정토 관계 서적인 『念佛普勸文』을 통한 『관경』의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十六觀變相圖에서 九品往生の 강조

1. 西方九品會圖와 佛明山 勸修淨業往生捷徑圖

淸虛 休靜(1520~1604)은 1548년에 금강산 도솔암 극락전에 금불상 7구를 안

² 유마리, 「朝鮮後期 觀經十六觀變相圖-觀經變相圖의 연구II」, 『佛敎美術』12(1994), pp.73-139; 신은수, 「朝鮮後期 極樂九品圖 研究」(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
〈西方九品龍船接引會圖〉
1582년
비단에 금니선묘
115×87.8cm
日本 香川 來迎寺

치하고 벽에 순금으로 阿彌陀佛會 1탱과 西方九品會 1탱을 봉안했다는 기문을 지었다.³ 奇巖 法堅(1555~1634)도 여주 상두산 장흥사의 영산회상탱과 서방구품회탱의 중수를 권하는 글을 작성했다.⁴ 이 두 글에서 주목되는 점은 16~17세기 초 두 폭의 불화가 제작되었으며 이 중 한 폭이 서방구품회도라는 것이다. 기록에 언급된 서방구품회도는 십육관변상도를 의미하지만 형식은 16관상의 재현이라기보다는 아미타설법회와 구품이 강조된 불화였을 것이다.⁵

조선 전기의 변화된 십육관변상도의 형식은 1582년에 조성된 일본 香川 라이고지(來迎寺) 소장 〈西方九品龍船接引會圖〉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⁶. 화면 상단에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비롯해 여러 보살과 권속들이 모여 있는 설법회와 七寶池에는 왕생하는 6인의 왕생인이

표현되어 있다. 화면 하단에는 아미타불과 팔대보살이 龍船에 왕생자를 태우고 극락세계로 접인해 가는 장면이 크게 묘사되어 있다.⁶ 화기에 적힌 畫題인 “西方九品龍船接引會圖” 그대로 화면은 상단에 서방구품회, 하단에 용선접인회로 구성되어

3 休靜, 「金剛山兜率庵記二」, 『清虛集』卷五, 『韓國佛教全書』第7(1986), p.70.

4 法堅, 「長興寺彌陀像改金靈山會幀西方九品會幀重修勸善文」, 『奇巖集』卷三, 『韓國佛教全書』第9(1986), pp.177-178.

5 십육관변상이란 명칭은 일본 가마쿠라 시대에 제작된 阿彌陀寺 소장 〈십육관변상도〉(13세기) 상단의 ‘觀無量壽經十六觀相’이란 화제와 고려불화인 일본 隣松寺 소장 〈십육관변상도〉(1323) 화기의 ‘淨土十六觀衣各頌’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일본 知恩院 소장 〈십육관변상도〉(1465) 화기에 善導의 『五種增上緣義』에서 관경의 정토장엄변상을 제작하게 할 것을 권한 일에 비유한 “善導九品造畫者”란 문구와 元天錫(1330~?)이 『松谷行錄』의 ‘願成西方九品圖詩’에 쓴 “又西方淨土妙莊嚴第次相分十六觀願共人登彼岸”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조선 초에 16관을 구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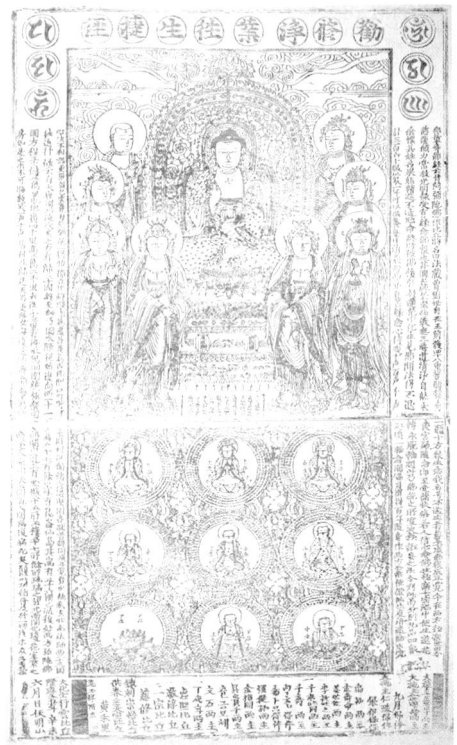
6 조선시대 관경변상도의 형식 변화와 용선접인 도상에 관한 글로는 정우택, 「來迎寺 阿彌陀淨土圖」, 『佛教美術』12(1994), pp.51-71; 「銀河寺 舊藏 龍船接引圖」, 『考古歷史學誌』16(2000), pp.595-615; 崔耕苑, 「조선 전기 불교회화에 보이는 ‘接引龍船’ 도상의淵源」, 『미술사연구』25(2011), pp.275-308가 있다.

있다. 16관상을 충실하게 그렸던 고려 말 조선 초 심육관변상도와 다르게 <서방구품용선접인회도>의 서방구품회 장면에서는 제1寶樹觀, 제4寶池觀, 제5寶池觀, 제6寶樓觀 등은 배경처럼 처리되었으며 화면에서 아미타설법회와 구품이 부각되었다.

이 시기 기록에서 언급하는 서방구품회도를 명칭 그대로 표현한 예로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佛明山 勸修淨業往生捷徑圖>(1571년, 이하 <불명산 왕생접경도>)가 있다.⁷ 이 변상도는 상단에 아미타불과 팔대보살로 이루어진 설법회와 하단에 蓮臺에서 구품왕생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품왕생은 3단에 걸쳐 上品, 中品, 下品을 배치하고 다시 中生, 上生, 下生을 3열로 구별했다. 또한 상품왕생자는 보살, 중품상생자부터 하품중생자는 승려, 하품하생자는 빈 연꽃으로 묘사하고 ‘上品上生’, ‘下品下生’ 등으로 구품의 단계와 의미를 정확하게 표기했다². <불명산 왕생접경도>는 <서방구품용선접인회도>의 서방구품회 장면과 비슷하지만 16관상 중 극락세계를 연상시키는 자연 경물을 모두 생략하고 16관상의 마지막 단계인 극락세계의 구품왕생을 하단에 크게 표현해 전달하려는 주제에 집중시키고 있다.

“정업을 권해 수행함이 왕생의 지름길”이라는 화제 그대로 이 변상도는 서방정토의 구품왕생을 위한 淨業인 염불수행용으로 제작되었다. 변상도 주변에는 수행의 주제, 정업의 의미, 수행의 방식에 관해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無量壽經』에 이르길 “옛날 아미타불이 비구였을 때 그 이름을 法藏이라 하였는데, 일찍이 世自在王佛 앞에서 48가지 서원을 발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시방세계의 중생으로서 나의 이름을 염송하고도 정토에 태어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정각을 이루어 지금 서방극락세계에 계시면서 자비와 원력으로 항상 광명을 내어 인연이 있는 염불 중생을 받아



2
 <佛明山 勸修淨業往生捷徑圖>
 1571년
 목판화 78×56.4cm
 동국대학교박물관

⁷ 하단에 “練刻崇悟比丘 供養主天寶比丘 黃禾里 菟玉淳兩主”大化土行雲比丘 隆慶五年辛未六月日 佛明山”이란 개판기가 있다. 불명산은 충남 논산과 전북 완주에 위치하고 있다. 두 산에는 조선 전기에 刊經활동이 활발했던 雙溪寺와 花巖寺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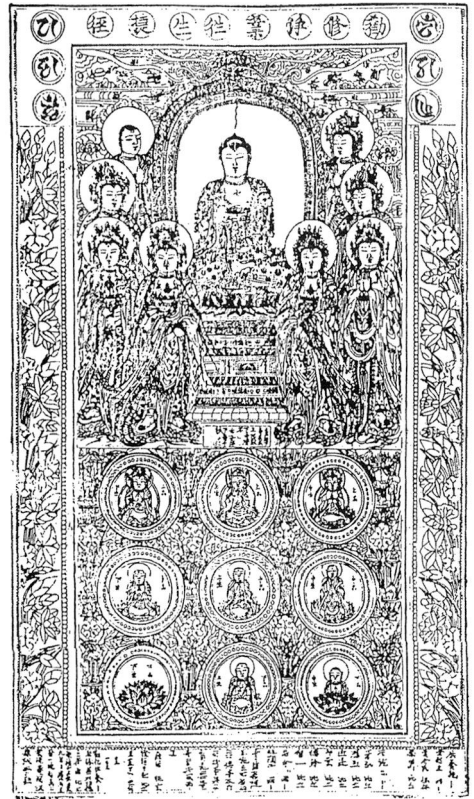
들인다. 그 국토는 순수하여 칠보로 장엄되어 있고, 三惡道가 없으며, 청정한 자연 그대로이다. 의식주는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온갖 쾌락을 누린다. 만일 어떤 사람이 信心으로 염불하면 극락세계의 칠보 연못 가운데 태어나리니, 문득 연꽃 송이 한 줄기가 솟아올라 그의 성명을 표시하리라. 진실로 물러남 없이 정진한다면 목숨이 다하여 임종할 때 아미타불이 맞이해 연꽃 가운데 化生하여 부처님을 뵈고 법문을 들어 不退轉의 지위를 얻어서 영원히 윤회에서 벗어나리라.”고 하였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이니, 결단코 믿지 못할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다. 이제 이 그림을 간행하되, 九品四衆을 분별하여 도합 360개의 칸[眼]으로 1년을 상징토록 하여 공양할 수 있게끔 하였다. 매일 새벽 서쪽을 향하여 그릇된 인연에 물든 마음을 멈추고 열 번, 백 번, 천 번 (아미타불을) 소리내어 부르면서 붉은 물감으로 한 칸을 메우되, 圓滿月(=아미타불)이 평생토록 내 몸과 더불어 머물기를 염원하면서 서방(극락)에 태어날 公案을 삼으면 왕생을 증득하리니, 이는 미혹한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깨달음의 마음과 결코 어긋나지 않으리라. 나아가 이미 구경의 깨달음을 성취하여 자연히 아미타불처럼 단번에 깨달음을 이루어 곧바로 해탈한다면 더없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리라. 옛 부처님께서 재물과 이익을 구하지 말라고 입이 쓰도록 간절히 말씀하셨으니, 다만 원컨대 모든 사람들이 신심이 견고하고 각자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 함께 正覺을 이루기를 바랄 따름이니 어찌 도움이 적겠는가!⁸⁾

이 글은 서두에 『무량수경』에 근거해 법장비구의 48서원, 아름다운 극락세계로 염불중생의 왕생, 그리고 信心으로 염불하면 極樂七寶池에 태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 정업을 닦는 방법으로 『관경』의 三輩九品往生 장면을 표현한 형상을 공양하고 매일 새벽 서쪽을 향해 정신을 집중해 念心하여 稱口로 염불하기를 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업의 결과로 서방왕생만이 아니고 중생구제, 나아가 깨

⁸⁾ “無量壽佛經云 昔阿彌陀佛 作比丘時 名曰法藏, 曾對世自在王前 發四十八重誓願, 於中有一願 十方衆生 念我名號 不遂生者 誓不成佛, 後成正覺 今在西方極樂世界, 慈悲願力 常放光明 祿受有緣 念佛衆生, 其國土純以七寶莊嚴 無三惡道 清淨自然, 衣食宮殿 隨念即至 受諸快樂, 若人信心念佛 生極樂七寶池中, 便生蓮花衆 標其姓名, 果然 精進不退 臨命終時 彼佛接引 於蓮花中化生 見佛聞法 得不退轉 永脫輪迴, 此乃佛說之所宣 決無誑妄之法, 令刊此圖 分別九品四衆 計三百六十眼 以象一年 可以供養, 每日清晨向西 屏息亡緣念心 持或十聲百聲千聲 紅墳一眼 念圓滿月 留得百年隨身 作西方公案 便證往生 度濟迷倫等 覺心決不相誤, 更能就已究竟 自然彌陀一得悟徹 立地解脫 尤爲盡善美焉, 古佛開口叮嚀 不求財利, 但願諸人 信心堅固 各脫苦趣 同成正覺 豈少補哉.” 탈초와 번역은 불교중앙박물관장이신 홍선스님의 도움을 받았다. 밑줄은 필자 강조.

달음까지도 이룰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글의 핵심은 念佛, 淨業, 往生, 正覺이다. 西方公案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음과 입이 하나 된 염불수행은 선의 성격을 가지며, 왕생과 깨달음을 동시에 이룬다는 생각은 禪淨雙修의 전통에 기반한다. 조선 전기 선종 중심으로 불교가 통폐합되면서 당시 성행했던 염불은 기복적인 행위보다는 修行을 겸비하는 염불선으로 발전했고 조선 후기에는 승려들이 닦아야 할 수행체계인 삼문수업에 禪敎와 함께 念佛門으로 체계화되었다.

〈불명산 왕생첩경도〉의 화면 크기는 대략 80cm로, 글에 내용대로 실제 서쪽 벽에 걸어 마음과 입으로 정업을 닦는 데 사용했을 것이다. 또한 화제의 의미 그대로 정업을 권하는 용도와 목판의 특성에 맞게 다량으로 印出되어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었을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조선 후기에 왕생첩경도는 쌍계사 소장 지리산 영원사판(1640), 통도사 소장 원적산 운흥사판(1678), 송광사 소장 영원사판(1781) 등으로 번각될 정도로 신앙의 수요가 높았다³. 번각이 될 때마다 외곽에 새겨진 명문이 연꽃으로 대체되거나 사라졌지만 아미타극락세계의 구품왕생을 향한 염불과 깨달음의 수행방식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3

〈靈源寺 勸修淨業往生起程圖〉
1640년
목판화 79×44.5cm
경남 하동 쌍계사
『全國寺刹所藏木板集』
문화재관리국, 1987 수록)

2. 권수정업왕생첩경도의 전승: 대승사와 용문사 木刻阿彌陀九品會圖

조선 후기 사찰의 극락전과 암자에는 아미타불이 극락세계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아미타불회도가 후불벽에 봉안되었다. 이런 일반 경향과 달리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 경상북도에서는 나무에 아미타설법회와 九品蓮臺를 조각한 목각아미타구품회도가 제작되어 법당에 모셔졌다.⁹

⁹ 이 후불도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용문사 목각아미타구품회도〉(1684)의 화기와 발원문에서는 後佛木幀, 大彌陀會後佛像, 彌陀會板幀 등으로 기록했고 〈대승사 목각아미타구품회도〉와 관련된 19세기 초 송문 문서에는 刻佛畫幀, 諸佛幀像, 刻佛 等이라 기록했다. 또한 1912년 작성된 대승사 『建物及貴重品原帳』에서는 九品木幀으로 기록했다. 연구자들도 木刻幀, 木刻幀畫, 木造佛幀, 後佛彫刻 등으로 다르게 칭하며 문화재지정명은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이다. 본 글에서는 화면

현전하는 목각아미타구품회도는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구품회도>(1675),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구품회도>(1684), 서울 <경국사 목각아미타구품회도>(17세기 말), 상주 <남장사 관음암 목각아미타구품회도>(1694), 상주 <남장사 보광전 목각아미타구품회도>(17세기 말~18세기 초), 남원 <실상사 약수암 목각아미타구품회도>(1782) 등 총 6점이 있다.¹⁰

남원 실상사본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목각아미타구품회도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에 端應과 卓密 계열의 조각승이 제작하여 영주(문경으로 이안), 예천, 상주 등 경상북도 사찰에 봉안했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¹¹ 이 중 제작연대가 앞서는 대승사본, 용문사본, 경국사본 등은 아미타설법회 아래에 구품왕생을 상징하는 아홉송이 연꽃이 표현되어 있으며 특히 대승사본과 용문사본은 연꽃마다 “上品上, 上品中, 上品下, 中品上, 中品中, 中品下, 下品上, 下品中, 下品下” 등 명문이 적혀 있다^{도4, 5}. 목각아미타구품회도의 화면을 아미타설법회와 구품연대로 구성하고 구품왕생을 명문화하는 방식은 왕생접경도와 유사하여 두 작품간의 영향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¹²

화면 구성과 함께 대승사본 외곽틀에 적혀 있었던 명문은 목각아미타구품회도의 주제와 제작 배경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현재 대승사본은 1956년 화재로 상단틀을 제외한 나머지 틀이 새로 교체되었다. 1905년에 촬영된 대승사본을 보면, 화면 외곽 좌우틀에 “대우주 안의 무량한 찰토, 삼세의 공과 색은 원만한 법, 미래 극락세계의 연지에 구품, 아미타삼존과 성스러운 스님에게 귀의합니다”란 명문

구성과 주제에 근거해 목각아미타구품회도로 하겠다.

¹⁰ 문갑수, 「大乘寺 木刻幀」, 『美術史學研究』7(1966), pp.227-230; 문갑수, 「尙州 南長寺藏 木刻幀 畫에 關하여」, 『歷史教育』(1969), pp.337-346; 이중문, 「朝鮮後期 後佛木刻幀 研究」, 『美術史學研究』209(1996), pp. 39-85; 유마리, 「조선 후기 木刻幀에 나타난 극락구품 연구」, 『강좌미술사』28(2007), pp.153-175.

¹¹ 최근 조선 후기 조각승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무기년명 목각아미타구품회도가 端應과 卓密 계열의 조각승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주완, 「용문사 목불상의 작품과 그 영향」, 『강좌미술사』26(2006), pp.139-163; 이민형, 「17세기 후반의 彫刻僧 端應과 卓密의 불상 연구」(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경국사 목각아미타구품회도는 서울에 봉안되어 있지만 단웅과 탁필이 조성한 목각아미타구품회도와 조각수법이 유사하고, 18~19세기 경국사 중창에 경상도 선사들이 깊숙이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해 경상도에 편입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권상로, 『한국불교전서』상권(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pp.71-72; 이철교 해, 「서울 및 近郊 寺刹誌(原題 奉恩本末寺誌-제3편, 『多寶』(1994), pp.27-33.

¹² 이용윤, 「曹溪寺 直轄寺庵의 佛畫」, 『韓國의 佛畫-曹溪寺 直轄寺庵篇(上)』(성보문화재연구원, 2005), pp.196-197 도33 설명; 「聞慶 大乘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에 관한 研究」,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과 관계문서』(문경시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11), pp.106-123. 왕생접경도가 목각아미타구품회도로 변안된 배경은 IV장에서 설명하겠다.



이 새겨져 있었다.¹³ 이 명문은 용문사본의 좌우 틀에서도 볼 수 있다.¹⁴ 글의 내용은 목각아미타구품회도가 왕생첩경도처럼 극락세계의 구품왕생을 주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승사본과 용문사본은 좌우 틀 외에도 상하단 틀에 卍자와 梵字, 八卦 등이 새겨져 있다. 이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용문사본의 하단 틀 중앙에 새겨진 “明心”이다¹⁵. 명심은 깨달음을 일으키는 흔들리지 않는 밝은 마음으로,¹⁶ 염불의 관점에서 보면 觀心이나 念心이 이에 해당된다. 조선 후기에 활동한 鏡岩 應允(1743~1804)은 儒佛仙을 논함에 있어 명심을 불교의 大旨라 했다.¹⁶

조선 후기에 염불은 종교적 행위보다는 수행 방식인 염불선으로 받아들여졌

4

〈大乘寺木刻阿彌陀九品會圖〉

1675년

나무에 도금 349×278.9cm

경북 문경

5

〈龍門寺木刻阿彌陀九品會圖〉

1684년

나무에 도금 265×21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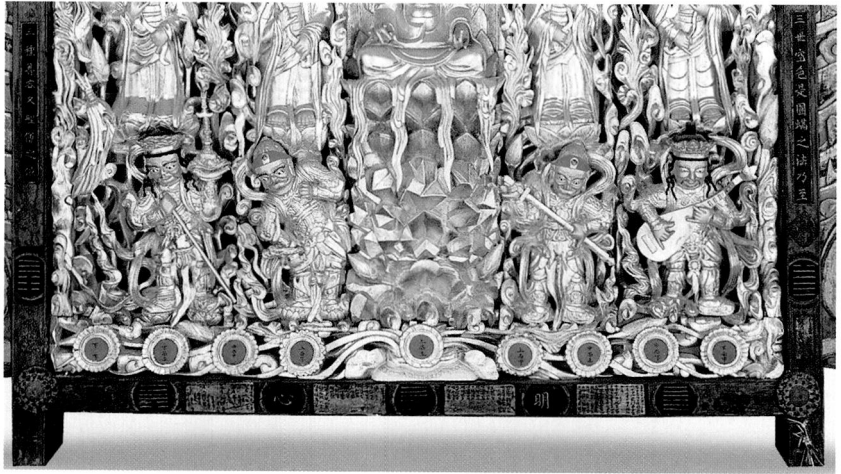
경북 예천

¹³ 大須彌之中微塵刹土 三世空色是圓滿之法乃至(左) 當極樂之界寶池九品 三種尊容又聖僧之位歸依(右). 밑줄은 필자 강조.

¹⁴ 大須彌之中微塵刹土 三世空色是圓滿之法乃至(左) 當極樂之界寶池九品 三種尊容又聖僧之位(右).

¹⁵ 불교에서 明心은 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마음 ② 밝은 마음 ③ 마음을 밝히는 것 곧 도를 깨달는 것으로 설명했다. 智冠 編著, 『伽山佛教大辭林』6(伽山佛教文化研究院, 2004), p.331-332.

¹⁶ “問三教大旨 以何爲極則 曰佛道明心 老道專氣 儒道心氣”, 「論三教同異」, 『鏡岩集』, 『韓國佛教全書』第7(1986), p.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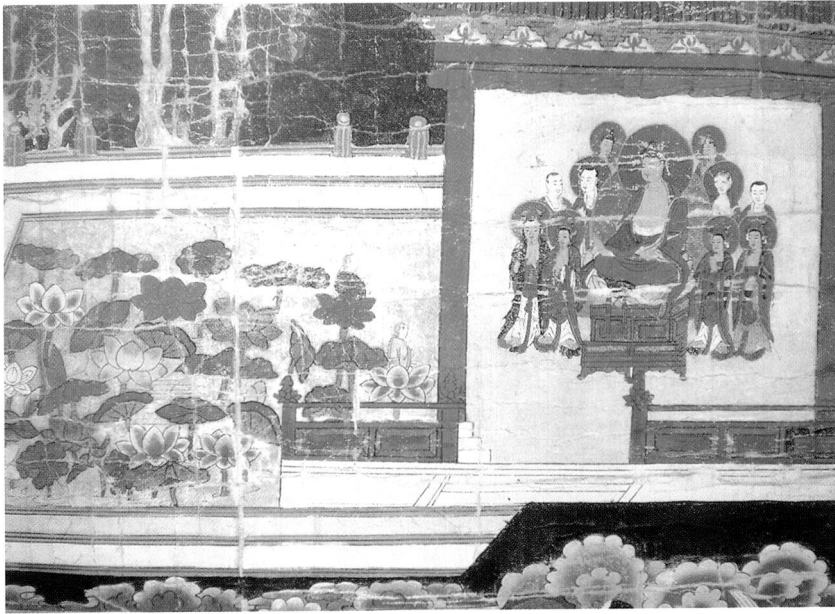


다. 月渚 道安(1638~1715)은 念佛冊을 인출하면서 “서방의 念佛法 동방의 最上禪, 부처의 명호는 無量壽요 金池의 九品蓮이라”고 했다.¹⁷ 이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아미타불과 구품연대는 단순히 정토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완성되는 禪의 존재이자 상징적 이미지로 이해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 정서는 염불수행을 위한 시각적 투영물인 대형의 목각아미타구품회도라는 조형물의 제작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대승사본과 용문사본에서 구품왕생의 의미를 상징했던 구품연대는 <남장사 관음암 목각아미타구품회도>(1694)에서는 그 정확한 의미가 퇴색하고 장식적인 요소로 변모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대승사본을 모본 삼아 제작한 <남장사 보광전 목각아미타구품회도>(17세기 말~18세기 초)에서는 연꽃이 완전히 사라지고 아미타 불회도의 형식으로 전이되었다.

목각아미타구품회도에서 구품의 상징성은 점차 사라졌지만 서방정토에 구품 왕생을 표현하려는 경향은 경상북도에서 활약한 畫僧에 의해 지속되었다. 김천 <직지사 감로도>(1724)에는 다른 감로도에서 볼 수 없는 아미타설법회와 구품왕생 장면이 화면 상단에 그려져 있다¹⁸. 조선 후기의 감로도에서 죽은 이의 천도는 칠여래, 관음·지장·인로왕보살 등을 표현해 은유적으로 암시했다. 이와 다르게 <직지사 감로도>는 화면에 아미타설법과 연지에 왕성한 망자를 표현해 극락세계의 구품왕생이란 천도의 결과를 直觀할 수 있게 했다. <직지사 감로도>를 제작한 화승 性澄은 18

¹⁷ 道安, 「念佛冊一千卷印出勸詞」, 『月渚堂大師集』卷下, 『韓國佛教全書』第9(1986) p.118.



7

〈直指寺甘露圖〉의 아미타설
법회와 구품왕생 장면
1724년
비단에 채색 286×199cm
개인소장(강우방 외, 『甘露
幀』, 예경, 1995, 도7)

세기 전반 김천, 성주, 상주, 예천, 의성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사찰에 봉안되어 있는 목각아미타구품회도를 시각적으로 체험했을 것이다.¹⁸ 그가 18세기 감로도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아미타설법회와 구품왕생을 표현했다는 것은 서방구품에 대한 개념이 18세기 전반까지 경상도에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Ⅲ. 九品往生에 새로운 十六觀의 재현과 변주

1. 명대 관경변상도의 수용: 은해사念佛往生捷徑圖

17세기 후반 경상북도에서 왕생첩경도에 연원을 둔 목각아미타구품도가 제작되었다면, 18세기 후반에는 명대에 간행된 『관경』에 수록된 변상도의 영향을 받은 불화가 제작되었다. 명대 『관경』에는 영산회상도를 포함해 1관부터 16관을 도해한

¹⁸ 성징은 이후 직지사본에 근거하여 〈성주사 감로도〉(1729)를 제작했다. 직지사본과 다르게 성주사본은 연지에 연꽃만 그리고 왕생자는 표현하지 않았다. 이외 성징이 제작에 참여한 불화로 〈남장사 감로도〉(1701), 〈용문사 괘불도〉(1705), 〈용문사 팔상도〉(1709), 〈용문사 천불도〉(1709) 등이 전한다.



8

〈銀海寺念佛往生捷徑圖〉

1750년

비단에 채색 160×3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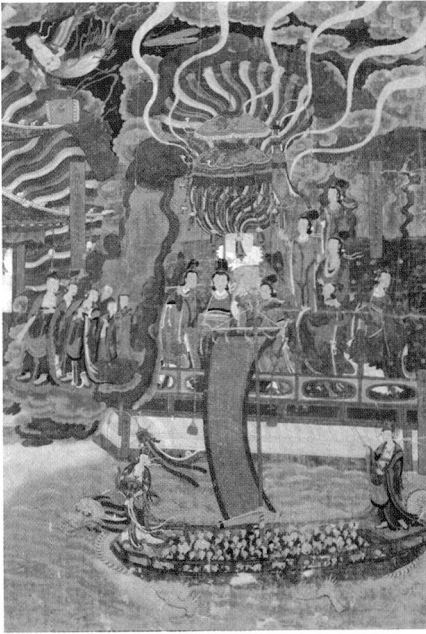
경북 영천

변상도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 중 몇몇 觀相은 조선 후기 불화에 차용되어 형식에 변화를 주었다.¹⁹⁾

영천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1750)는 조선 전기부터 전승되어 온 정토의 이미지와 명대 《관무량수경변상도》(이하 명대 《관경변상도》)의 16관의 요소가 결합된 불화로 18세기 후반부터 경상도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했던 극락세계구품회도가 형성되기 이전의 단계를 보여준다.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는 화면 중앙의 이층 누각을 경계로 향 우측에는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와 구품왕생이 표현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왕생자를 태운 龍船接引 장면과 가마를 운반하는 천인 장면이 그려져 있다⁸⁾. 화면 구성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개되며 주제는 극락세계로의 접인과 왕생이다. 방제 가운데 ‘念佛之人乘船往生’, ‘阿彌陀佛現前接引念佛衆生’, ‘念佛之人生蓮華池’, ‘佛與菩薩具接念佛人’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접인과 왕생의 대상은 念佛人이다.²⁰⁾

¹⁹⁾ 명대 『관경』에는 1425년(洪熙 元年)에 쓴 御製觀無量壽經序文과 1451년(景泰 二年)에 작성된 後序가 수록되어 있다. 명대 《관경변상도》에 관한 글로 박도화, 「朝鮮 前半期 佛教版畵의 研究」(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pp.91-99; 「朝鮮時代 佛教版畵의 樣式과 刻手」, 『강좌 미술사』 29(2007), pp.195-196; 명대 《관경변상도》와 조선 후기 십육관경변상도의 관계를 고찰한 논문은 문용호, 「朝鮮時代 阿彌陀淨土圖 研究」(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가 있다.

²⁰⁾ 처음 학계에 보고 될 당시에 도 화기가 거의 손상되어 제작 연대인 건륭15년(1750) 정도만 파악되었다. 최근 이 불화의 제작자로 性淸, 옥련이라 언급되기도 했다(『전국사찰불화조사(2)-부산시,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문화재청, 1990) p.11; 『銀海寺寺誌』(은해사·사찰문화연구원, 2006),



9

〈銀海寺念佛往生捷徑圖〉의
용선접인 도상과 상품상생 접
인도상

10

明代《觀經變相圖》의 14 상품
상생관
실상사 판본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에서 염불인을 용선에 태우고 극락세계로 접인해 가는 장면은 조선 전기의 용선접인 도상을 계승한 예로 주목을 받았다. 왕생자를 태운 용선의 船頭에는 관음보살이 번을 들고 서 있고 船尾에는 세지보살이 노를 젓고 있으며, 구름을 탄 아미타불과 권속들은 앞에서 용선을 인도하면서 극락세계로 접인하고 있다. 이 장면에서 주목되는 구성은 아미타불의 접인 대상이 용선의 염불인만이 아니라 천인들이 운반하는 가마도 포함한다는 점이다⁹⁾. 가마에는 금연화대와 은연화대가 놓여 있고 그 옆에 ‘上品上生者所來金銀臺風樂侍衆’이란 방제가 적혀 있다. 아미타불과 여러 보살들이 왕생자를 ‘蓮臺’에 태워 극락세계로 접인한다는 내용은 『관경』의 주된 주제이지만, 우리나라의 조각이나 회화로는 크게 표현되지 않았다.²¹ 조선시대에 접인의 매개체로 龍船이 강하게 선호되는 속에서도 조선 후기에는 구품연대가 지닌 극락왕생의 이미지와 더불어 蓮臺가 다시 접인의 매개체로 인식

p.96). 불화의 명칭은 연구자에 따라 염불왕생첩경도, 십육관변상도, 극락세계구품도 등으로 칭하고 있으며, 본 글에서는 염불인의 왕생이 강조된 점에 착안하여 염불왕생첩경도라 하겠다. 화면 구성과 방제와 관한 내용은 유마리, 앞의 글(1994) 참고.

²¹ 우리나라에서는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아미타삼존내영도〉(고려 후기)가 이에 해당된다. 이 불화에서 관음보살은 연대에 왕생자를 태우기 위해 허리를 굽힌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되기 시작했다.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에서 연대가 실린 가마를 접인해가는 천인의 무리는 『관경』에서 언급한 불보살의 접인과 연대의 모습에서 차이가 있다. 가마에 실린 연대, 이를 운반하는 천인 등 새로운 요소가 반영된 이 도상은 명대 《관경변상도》의 14관인 上品上生觀에서 비롯되었다²⁰.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와 14관을 비교해보면 연화대의 모양과 수는 차이가 있지만 가마의 형태, 가마를 운송하는 천인들의 모습은 명대 《관경변상도》를 따르고 있다.²²

15세기에 간행된 명대 『관경』이 국내에 어떻게 유입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현재 황해도 석두사판(1558)과 전라남도 부안 능가사판(1611) 등이 전한다. 上品上生接引 도상이 불화에 본격적으로 차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18세기부터이며 주로 감로도의 碧蓮臺로 표현되었다. 수록의식집에서 벽련대는 망자를 천도하는 매개체로 서술되고 있으며 이는 기능상 『관경』의 蓮臺와 유사하다. 벽련대는 금산 〈보석사 감로도〉(1649)에서는 연꽃으로, 하동 〈쌍계사 감로도〉(1728)에서는 연화대좌로 변모되었다가 여수 〈흥국사 감로도〉(1741)부터는 상품상생접인 도상으로 대체되었다. 이후 안동 〈봉정사 감로도〉(1765)에서는 명대 《관경변상도》의 14관을 그대로 옮겨온 듯 화면 좌우에 상품상생접인 도상이 표현되었다.²³ 이처럼 극락세계로의 천도라는 개념 하에 감로도에서 벽련대로 轉用되었던 상품상생접인 도상은 『관경』의 구품왕생 신앙이 강하게 지속되었던 경상북도에서는 본래의 의미를 살려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에서 용선과 함께 왕생자를 접인하는 도상으로 사용되었다.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에서는 상품상생자접인 도상만 아니라 제4樹觀, 제7座觀, 제12普觀을 차용하는 등 명대 《관경변상도》의 영향이 많이 나타난다. 특히 화면의 중심인 아미타설법회를 제12보관의 구성을 따라 권속이 외호하는 형식에서 아미타불과 관음·대세지보살로 구성된 삼존형식으로 단순화시켰다. 삼존형식의 차용과 함께 관음보살의 자물인 鉢 역시 그대로 표현되었다²⁴.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에는 용선접인 도상과 상품상생접인 도상이라는 전통과 새로운 도상이 혼재되어 있다.²⁴ 새로운 도상의 연원은

²² 문용호는 명대 《관경변상도》의 十四上品上生 계승 “三心圓發 諦理深明 金臺隨往 卽證無生”에 착안하여 이를 金臺 도상이라 했다. 본 글에서는 방제의 내용과 접인이라는 점에 근거해 上品上生接引 도상이라 하겠다.

²³ 상품상생접인 도상이 벽련대로 표현된 예로 〈선암사 무기년명 감로도〉(18세기), 〈수도사 감로도〉(1786), 〈용주사 감로도〉(1790), 〈은해사 감로도〉(1792), 〈백천사 감로도〉(1801) 등이 있다. 이 도상은 특히 18세기 후반부터 경상도 불화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²⁴ 이러한 현상은 각 장면을 설명하는 방제에서도 나타난다. 연지와 극락조, 누각 등에는 ‘七寶池 八功德水流注葉間演說妙法百寶變飾’, ‘重’ 奇妙雜色之鳥畫夜六時常說妙法, ‘池上有七寶樓閣千層’

명대 《관경변상도》였으며, 이는 아미타설법회와 구품연대로 고착화된 정도의 이미지에 16관상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여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에서 보이는 실험적이면서 과도기적인 표현들은 조선 후기 구품도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극락세계구품회도 형식이 등장하는 토대가 되었다.

2. 명대 관경변상도의 體化: 직지사 심적암 極樂世界九品會圖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말까지 경상도에서는 소위 ‘구품도’로 통칭되는 하나의 정형화된 정도 불화가 제작되었다. 이 불화 역시 극락세계의 구품왕생을 주제로 하고 있으나 대승사와 용문사 목각아미타구품회도와 형식이 다르고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처럼 화면의 각 장면을 명대 《관경변상도》의 16관상에서 차용했으나 구성에서 차이가 난다.

현전하는 구품도 가운데 제작시기가 앞선 〈직지사 심적암 극락세계구품회도〉(1778, 이하 〈직지사 극락세계구품회도〉)는 〈동화사 염불암 구품도〉(1842)를 비롯해 19세기 후반에 조성된 구품도의 모본이 되는 불화이다²⁵. 또한 〈직지사 극락세계구품회도〉는 명대 《관경변상도》의 16관상 중 어떤 부분을 차용하여 재구성했는지 유추가 가능할 정도로 묘사가 충실하며, 특히 하단에 적힌 16觀頌은 이 불화와 명대 《관경변상도》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반증해준다.

〈직지사 극락세계구품회도〉에서 보이는 명대 《관경변상도》의 요소는 제1日觀, 제4樹觀, 제7坐觀, 제8像觀, 제9佛觀, 제10觀音觀, 제11勢至觀, 제12普觀, 제14上品觀, 제15中品觀, 제16下品觀 등과 그리고 16관송이다. 각 장면들은 화면 중앙의 구품연지를 중심으로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며 좌우로 배치되어 있으며, 구성에 따라 도상에 변화를 주었다. 즉, 구품연지에서 솟은 연화대와 위에 앉아 있는 아미타삼존은 14관, 15관, 16관에 근거하면서도 관음과 대세지보살은 측면향으로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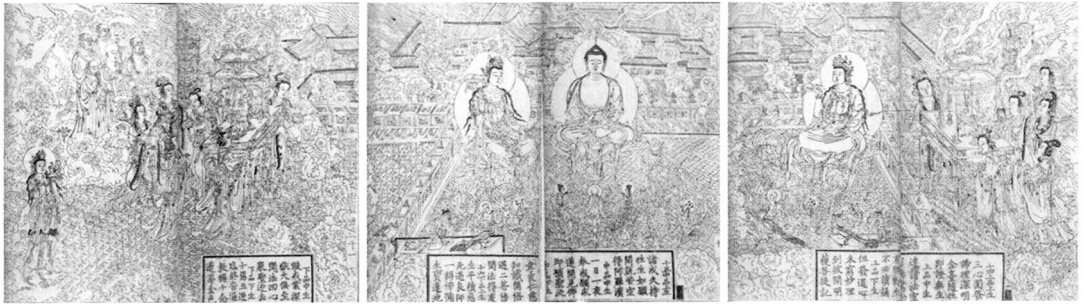
萬層廣妙好’과 같이 극락세계의 관용구들이 사용되었으며, 제4樹觀에서는 명대 《관경변상도》의 16觀頌의 ‘七重行樹清陰垂布妙好無窮’이 그대로 인용되었다.

²⁵ 이 불화는 현재 한국미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2004년 공개 당시 正德二年인 1507년작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이는 잘못 해석한 것으로 화기는 다음과 같다. “乾隆四十三季戊戌 元月初五日 金陵 西嶺黃山直指■深寂菴極樂世■九品會頓奉安 大施主 平生發願九品 帝釋天龍頓 大施主 重演……緣化秩 證明比丘菊密保■比丘絢俊保■……良工 有誠保■靜坦保■守印保■戒慎保■幸活保■普仁保■若禪保■戒仁保■” 화기에 근거해 본 글에서는 명칭을 극락세계구품회도로 하겠다. 화기의 적외선 사진과 탈조 자료는 송광사 성보박물관장인 고경스님에게 제공받았다. (■는 표구로 글자가 가려 판독이 안 된 글자)



지 않고 제9관, 제10관, 제11관처럼 아미타삼존을 모두 정면을 향하게 표현했다¹²,
 13. 이로 인해 화면에서 아미타삼존은 주존으로서 그 존재감이 부각되고 동시에 제
 9관, 제10관, 제11관과 제14관, 제15관, 제16관의 관상을 중첩시키는 효과를 가져왔
 다. 도상의 차용으로 인해 아미타불은 전통적인 수인인 설법인 대신 禪定印으로 변
 하고 관음보살은 정병 대신 버들가지와鉢을 든 모습으로 표현했다.

왕생과 관련된 상품상생접인 도상은 화면 하단에 표현되어 있다. 이 부분은 명
 대 《관경변상도》에 수록된 도상을 충실히 재현하여 화면 좌우에 배치했으며 이와
 동시에 좌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오른쪽에 공양천녀를 추가하고 나한, 천왕들을 수
 를 늘려 표현했다. 차용과 변용은 화면 좌우에 그려진 누각의 설법 장면에서도 나타
 난다. 오른쪽 누각에 있는 아미타삼존은 제8관에 근거했지만 화면 구성을 고려해



12

明代《觀經變相圖》의 제14관, 15관, 16관
조선시대
목판본 해인사백련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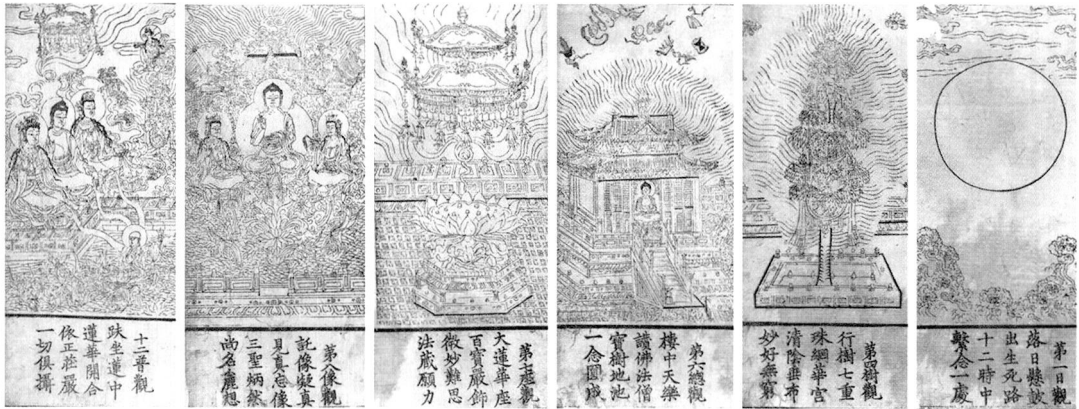


13

明代《觀經變相圖》의 제9관, 10관, 11관
조선시대
목판본 해인사백련암

자세를 측면을 향하게 하고 난간 밑에는 합장한 승려들을 배치하는 등 변화를 주었다. 그러면서도 편액에 ‘像觀眞三聖殿’이라 적어 이 부분이 제8像觀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은 맞은편에도 적용되어 아미타삼존과 여러 보살이 앉아 있는 누각의 편액에 제12관인 ‘普觀莊嚴殿’이라 표기했다. 제8관과 제12관에 표현된 누각은 단순히 극락세계의 전각으로 볼 수 있지만 중첩된 이미지로 보면 제6總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⁴.

〈직지사 극락세계구품회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日觀의 표현이다. 일관은 〈서방구품용선점인회도〉(1582)부터 보이지 않다가 〈직지사 극락세계구품회도〉부터 화면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직지사 극락세계구품회도〉의 일관은 화면 하단에 위치하는데 이는 고려 말 조선 초 십육관변상도에서 상단에 그려지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불단에 걸린 불화의 높이로 미루어 짐작하면 하단에 그려진 일관의 위치는 실제 염불인의 눈높이와 가깝게 맞닿았을 것이다. 이는 일관으로 시작하는 16관법의 흐름과도 부합되는 배치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지사 극락세계구품회도〉



14
明代《觀經變相圖》의 제1관, 4관, 6관, 7관, 8관, 12관
조선시대 목판본
해인사 백련암

의 구성은 일관을 시작으로 제4樹觀과 제7座觀, 제8像觀을 거쳐 제9佛觀부터 제16下品下生觀에 이르는 극락세계의 구품왕생으로 진입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일관 아래에는 붉은 칸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16觀頌이 적혀 있다.²⁶ 16관송은 북송 초 寧波를 중심으로 활동했던天台승려가 만들어 유포했다고 알려져 있으며,²⁷ 현재 『樂邦文類』에 大智 元照(1048~1116)의 글이 전한다.²⁸ 16관송은 일본의 사이후쿠지(西福寺) 소장본, 린쇼지(隣松寺) 소장본(1323), 지온인 소장본(1323) 등 고려 후기 삼육관변상도에서도 표기되었지만 글의 체제와 내용은 <직지사 극락세계구품회도>의 16관송과 같지 않다. 이 16관송은 명대 《관경변상도》의 16관송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직지사 극락세계구품회도>가 명대 판본을 얼마나 충실하게 재현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²⁶ 직지사 심적암 극락세계구품도에 적힌 16관송은 다음과 같다. “第一日觀 落日懸鼓出生死路十二時中繫念一處 第二水觀 大水澄清凝然水結表瑠璃池內外映徹 第三地觀 瑠璃地上莊嚴衆相了見分明除疑破障 第四樹觀 行樹七重珠網華宮清陰垂布妙好無窮 第五地觀 八池德水七寶妙色蓮開鳥鳴洗除煩惑 第六總觀 樓中天樂讚佛法僧寶樹地池一念圓成 第七座觀 大蓮華座百寶嚴飾微妙難思法藏願力 第八像觀 託像凝眞見眞忘像三聖炳然尙名施相 第九佛觀 觀佛相好一經宗要三昧現前始攝奸方 觀音觀 光臨五道佛立頂冠聞名獲福何況諦觀 十一勢至觀 光通諸佛力救辟若頂餅盛光普現佛土 十二普觀 跌座蓮中蓮座□□何□□□一 雜觀卓□上一丈六六像變□大小了無定相 □四上品生三心相發諦理深明金臺階從耶證無生上品中生上品下生 十五中品上生 中品中生 下品下生 十六下品下生 下品上生 下品□生.” (□는 불독자)

²⁷ 河原由雄, 「日本에 있는 高麗佛畫의 位置」, 『高麗, 영원한 美: 高麗佛畫特別展』(호암미술관, 1993), pp.198-201; 『高麗時代의 佛畫 해설편』(시공사, 1997), p.79 도54 井手誠之輔 설명 참고.

²⁸ 宗曉가 편찬한 『樂邦文類』卷5(『新修大藏經』47, p.217) 16관송이 실려 있으나 원조의 『觀無量壽經義疏』에는 16관송을 찾을 수 없다. 원조의 『관무량수경의소』를 주해한 명대 傳燈의 『佛說觀無量壽經 附圖頌』(『正續藏經』33, pp.100-109)에는 16관송이 실려 있다. 그러나 이 관송은 명대 《관경변상도》에 수록된 16관송과 일치하지 않는다.

〈직지사 극락세계구품회도〉를 제작한 수화승은 有誠이다. 유성은 경상도와 충청남도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불화를 제작했다. 이 중 유성이 제작한 〈봉정사 감로도〉(1765)와 〈개심사 영산회괘불도〉(1772)는 그가 〈직지사 극락세계구품회도〉를 조성하기 전에 형성했던 16관에 대한 관심과 명대 판본과의 영향을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봉정사 감로도〉는 벽련대를 상품상생접인 도상으로 표현했다. 유성은 〈봉정사 감로도〉 제작 당시 편수로 참여했고 이 작업을 하면서 명대 《관경변상도》를 인식했을 것이다. 1772년에 유성은 〈개심사 영산회괘불도〉와 팔상전의 〈영산회상도〉, 〈팔상도〉 등을 제작했다. 개심사 불사를 진행하면서 유성은 1767년 雪訓이 조성한 〈개심사 관경변상도〉를 통해 16관을 시각적으로 경험했을 것이다. 설훈의 〈개심사 관경변상도〉(1767)와 유성의 〈개심사 영산회괘불도〉(1772), 그리고 유성의 〈직지사 극락세계구품회도〉(1778)와 관련해 연결이 되는 주요 인물로 세 불화의 證明을 맡았던 菊密이 있다. 국밀은 개심사에서 舊本 관경변상도의 중수를 계기로 조선 후기에 잊혀진 16관상에 대해 재인식했을 것이다. 이후 1772년 개심사 불사로 인연을 맺었던 유성이 직지사 심적암의 승려 重演의 발원으로 구품도를 제작하려 할 때 국밀은 前代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명대 《관경변상도》에 근거해 새로 재구성한 16관의 표현이 적법함을 증명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직지사 극락세계구품회도〉가 제작된 이후 이를 모본 삼아 그린 극락세계구품회도가 동화사 염불암(1841), 표충사 승련암(1882), 운문사(1883), 통도사 취운암(19세기 말 추정), 호국지장사(1893) 등지에 봉안되었다. 후대에 제작된 동화사, 표충사, 호국지장사의 극락세계구품회도에서는 16관송이 있던 부분이 무의미한 빈칸으로 처리되었고, 제8관과 제12관을 나타내는 像觀眞三聖殿과 普觀莊嚴殿의 편액명은 梵字나 極樂寶殿으로 바뀌는 등 상징성이 전도되었다. 뿐만 아니라 관음보살의 손에 든 버들가지가 사라지거나 천공의 악기가 축소되는 등 제작자에 따라 처음에 가졌던 표현 의도 또한 퇴색되었다. 한편 도상의 변형과 축소와는 반대로 운문사와 통도사 취운암의 극락세계구품도에서는 본연의 상징성을 보다 설명적으로 표현하려 했다. 운문사본에서는 상품상생의 연대 위에 왕생자를 표현하고 뒤에 내영하는 아미타불을 그려 그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했다. 통도사 취운암본은 연지에 극락교를 추가로 그려 아미타삼존과 인로왕보살의 접인을 받아 다리를 건너 구품왕생한다는 설명적인 묘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IV. 경상도 승려문중의 念佛禪과 『念佛普勸文』

조선 후기 불교계는 禪, 敎, 念佛을 중시하는 三門修業이 체계화되었다. 조선 후기 삼문수업의 특징은 삼문의 개별적인 성향을 유지하면서 선을 기반으로 화엄의 선적인 해석, 염불과 선의 결합에 의거한 수행 방식이다. 이런 이유로 조선 후기에 염불은 정토신앙만이 아니라 唯心淨土 自性彌陀의 念佛禪의 성격을 가진다.²⁹

조선 후기 승려들의 필독서인 『禪源諸詮集都序』에는 염불 역시 수행이며 염불로 정토를 구하려면 16觀禪 및 念佛三昧, 般舟三昧를 닦으라며 염불수행을 강조했다.³⁰ 이 글에서 16관은 전통적인 염불수행법인 염불삼매와 반주삼매와 같은 개념에서 설명되면서 그 성격은 정토신앙보다는 禪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다. 조선 후기에 활동한 好隱 有璣(1707~1785) 역시 『新編普勸文』의 序文에 염불의 요체는 서방극락세계 구품연지의 16觀禪이라며 16관을 선으로 인식했다.³¹ 염불-수행-16관-구품 등으로 연결되는 염불선의 개념은 삼문수업을 주창하고 정립한 청허 휴정(1520~1604)과 그의 제자 鞭羊 彦機(1581~1644)로부터 비롯되었다. 청허 휴정은 『심육관경』을 언급하면서 마음과 입이 상응하면 바로 蓮臺에 오르고 불보살의 접인을 받으니 念佛이 곧 參禪이라 했다. 편양 언기는 염불문을 설명하면서 세존이 말세 중생을 위해 별도로 16관문을 세워 아미타불을 정성껏 염하면 연화정토에 왕생하게 했고 염불이 곧 참선이라 했다.³² 또한 振虛 捌關은 『三門直指』(1769)에서 유심정토 자성미타의 염불선이 결국은 16관법의 구품왕생에 맞닿아 있음을 〈西方極樂世界九品蓮臺圖〉를 제시하면서 염불문을 설명했다.³³ 이처럼 조선 후기 불교계는 16관의 구품왕생을 정토의 시각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선수행의 결과로 생각했다.

²⁹ 이종수, 「조선 후기 불교의 수행체계 연구」(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p.8-9.

³⁰ “念佛亦修 至於念佛求生淨土亦修十六觀禪及念佛三昧 般舟三昧”, 『禪源諸詮集都序』. 이 문구는 傳 白坡巨璣(1767~1852)의 『無住警策』, 鏡虛惺牛(1849~1912)의 『鏡虛集』 등에서 계속 인용되었다.

³¹ “昔我世尊爲韋提希說無量壽經彼西方極樂世界九品蓮池十六觀禪昭昭然如在目前是實念佛之要旨也”, 「序」, 『新編普勸文』, 『韓國佛教全書』第9(1986), p.696.

³² “此頌思像念佛也合掌向西方凝心念彌陀……凝心日沒謝娑婆十六觀經聽釋迦無限色聲清耳目……心口若相應往生如彈指一念踏蓮花誰道八千里功成待命終大聖來迎爾參禪即念佛念佛即參禪本性離方便昭昭寂寂然”, 「念誦」, 『心法要抄』, 『韓國佛教全書』第7(1986), p.651; “佛爲末世衆生未得親聞法音者別立十六觀門勸念阿彌陀佛往生蓮花淨土……機雖有三法則一也……然則參禪則念佛念佛則參禪初何嘗有間哉”, 「上高城」, 『鞭羊堂集』, 『韓國佛教全書』第8(1986) p.262.

³³ “此圖乃人人自心田九宮本淨 如淨蓮花處染常淨 而人自迷 故世尊方便爲說經典 爲經典圖示”, 『三門直指』, 『韓國佛教全書』第10(1987) p.153.

조선 후기 경상도에서는 16관의 구품왕생을 조형화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이 지역에서 활동한 幻寂 義天和 霜峯 淨源(1627~1707)의 문중과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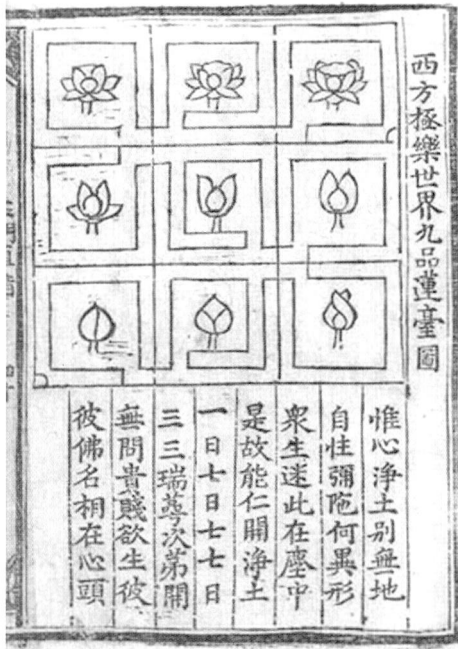
청허 휴정과 편양 언기의 법맥을 이은 환적 의천의 행장은 알려진 바 없으나 봉암사의 부도와 해인사 백련암의 진영으로 보아 경상도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영에 적힌 “西山嫡孫鞭羊親弟居止不定頭陀第一”이란 影題와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에 실린 “觀心辟穀幻寂義天首坐”라는 인물평을 보면, 그는 觀心の 두타(禪) 수행을 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제자인 昭影 神鏡(1684?~1713?)은 山下不出했다는 인물평으로 보아 수행(道業)을 중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³⁴ 그는 덕망 있는 승려로서 암자의 중창, 전각의 건립, 불상과 불화 등 여러 佛事に 증명과 화주로 참여했다.³⁵ 이 불사 가운데 대승사와 용문사 목각아미타구품회도는 소영 신경의 수행관과 조형의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³⁶ 〈용문사 목각아미타구품회도〉 원문과 화기에 의하면 이 후불도는 소영 신경이 뜻을 따라 제작되었다.³⁷ 하단에 새겨진 ‘明心이 말해 주듯 목각아미타구품회도에는 정도왕생만이 아니라 수행의 의미가 담겨있다. 소영 신경의 뜻에 따라 제작된 조형물에 새겨진 明心은 한편으로 스승인 환적 의천의 觀心과도 상통한다. 이로보아 소영 신경은 동시대 선사들과 마찬가지로 선과 염불을 결합한 염불선을 수행했을 것이며, 목각아미타구품회도를 조성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16관선의 수행법에 추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34 소영 신경은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에서 ‘山下不出昭影神鏡首座’로 평했으며(『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第3(1993) p.85), 『楓溪集』, 『雙溪寺能仁庵記』에서는 “昭影大師者有道之人也 自綺年抱不世之才而不以與世爭利名遯晦岩龕慨滌塵慮磨礱道業業一世當倍徙於衆人而非可跂而及者”라며 뛰어난 재주가 있는 인물로 세상의 명리를 쫓지 않고 도업, 즉 수행에 집중한 인물로 묘사했다. 『韓國佛教全書』第8(1986), p.262.

35 소영 신경은 쌍계사 능인암을 중창했으며 용문사 금당(1684)을 창건했다. 이외에도 〈용흥사 삼세 괘불도〉(1684), 〈용문사 목각아미타구품도〉(1684), 〈봉황사 삼세불상〉(1695), 〈쌍계사 사천왕상〉(1705) 조성에 증명을 맡고, 〈부석사 괘불도〉(1684), 〈정방사 관음보살좌상〉(1689) 조성과 〈갑장사 보살좌상〉(1689) 개금에도 참여했다. 주11의 심주완, 앞의 글(2006); 이만형, 앞의 글(2009) 참고.

36 목각아미타구품회도를 제작하는데 주요 인물로 신경 외에 宗現이 있다. 신경과 종현은 단응과 탁밀이 조성한 불상 제작에 증명, 지전, 화주 등으로 참여하는 등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용문사 목각아미타구품회도〉에서도 신경은 실질적 발원자로 종현은 증명으로 참여했다. 제작 당시의 기록은 아니지만 최근 공개된 〈대승사 목각아미타구품회도〉 화기에 종현이 증명으로 기록되어 있어 신경과의 관련성을 짐작하게 한다.

37 원문에는 “昭影堂大師遇過此寺而無金堂而可與 寺內僧徒承其大師之流言……兼彌陀會幀功成已畢……若非大師之庇廕安能成大事乎”라 했으며 화기에는 “金堂始册造佛像版幀名現大德昭影堂大師神鏡”이라 기록했다.



15
『三門直指』의
『極樂世界九品
蓮臺圖』
1769년
목판본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목각아미타구품회도는 화면 구성, 제작 의도와 사용 방식 등 여러 부분에서 왕생첩경도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이와 관련해서 1640년에 진주 지리산 영원사에서 개판되고 현재 하동 지리산 쌍계사에 보관되어 있는 왕생첩경도가 주목된다. 조선 후기 쌍계사는 지리산에 이름난 불서 간행 사찰이었다. 쌍계사에는 1695년에 간행된 화엄현담 경판 외에도 쌍계사 능인암에서 옮겨온 1603년, 1604년, 1611년 경판들이 보관되어 있다. 소영 신경의 주 활동지는 경상북도이지만 쌍계사 능인암을 중창하고 쌍계사 사천왕상 조성에 증명을 맡을 정도로 쌍계사와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목각아미타구품회도와 왕생첩경도의 친연성을 고려해 보면, 소영 신경은 왕생첩경도를 일찍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근거하여 평소 자신의 수행관이 반영한 조형물 제작을 조각승인 단웅과 탁발 등에게 의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소영 신경의 정토관과 수행관이 반영된 목

각아미타구품회도는 후대로 갈수록 구품이 사라지고 18세기에는 더 이상 제작되지 않았는데, 이는 환적 의천의 문중이 소영 신경 이후 급격히 쇠퇴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³⁸

소영 신경 이후 경상도 일대에서 구품왕생의 염불관과 수행법은 상봉 정원의 문도들에 의해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상봉 정원은 청허 휴정·편양 언기-楓潭 義謹의 법맥을 계승한 인물로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으며 입적 후 그의 부도가 가평 용문사, 청주 보살사, 대구 동화사, 예천 용문사 등지에 세워졌다. 대구, 예천에 상봉 정원의 부도가 두 기가 세워질 정도로 경상북도에서 그의 위상은 매우 높았다.³⁹

38 『海東佛祖源流』에는 환적의천의 제자로 昭影 神敬, 尙熙, 淸心 등이 기록되어 있다. 炯堧 編, 『海東佛祖源流』常(佛書普及社, 1979), p.51. 소영 신경은 남장사의 부도와 진영, 고운사의 碑, 용문사의 기일록 등을 통해 상주, 예천, 의성 등지에서 형성되었던 그의 문도들의 활동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사찰문화재-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경상북도II』(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참고.

39 특히 팔공산을 중심으로 상봉 정원의 제자인 洛巖 義訥(1666~1737), 洛濱 弘濟(1656~1730), 雲岩 玉俊 등이 크게 활동했고 또한 이들에게서 箕城 快善(1673~1764), 好隱 有瓊((1707~1785), 仁岳 義沾(1746~1796) 등의 걸출한 선사들이 배출되었다. 『한국의 사찰문화재-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경상북도I』(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7) 참고.

상봉 정원 문중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정토 서적이 바로 『念佛普勸文』(이하 『普勸文』)이다. 이 서적은 1704년 예천 용문사에서 처음 간행된 후 이를 저본 삼아 약간의 첨삭을 하여 팔공산 수도사(1741), 팔공산 동화사(1764), 구월산 홍률사(1765), 묘향산 용문사(1765), 가야산 해인사(1776), 무창 선운사(1787) 등지에서 중간되었다. 이외에도 새로운 내용을 더해 『新編普勸文』(1776년 추정)이 해인사에서 간행되었다.⁴⁰ 특히 18세기 전반에는 경상북도 용문사, 수도사, 동화사에서 『보권문』이 간행될 정도로 이 지역에서의 수요가 높았으며, 용문사판과 동화사판은 다른 사찰판의 저본이 될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 이처럼 경상도에서 『보권문』이 간행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이는 상봉 정원과 그의 門徒이다. 용문사판의 편찬자인 明衍은 序文에서 자신이 청허의 후예라 밝히고 卷末에는 같은 청허 문도인 상봉 정원의 발문을 수록했다. 이로 보아 명연은 상봉 정원과 친분이 깊었던 인물로 추정된다. 상봉 정원의 발문이 실린 『보권문』은 이후 상봉 정원의 문중이 세거한 팔공산의 수도사와 동화사에서 1741년과 1764년에 연속적으로 간행되었다. 동화사판 간행에는 염불사상가로 이름이 높았던 箕城 快善(1673~1764)이 관여했다. 기성 쾌선은 상봉 정원의 門孫으로 정토 서적인 『請澤法報恩文』, 『念佛還鄉曲』을 저술했고 1760년에는 동화사 기기암에서 염불결사를 펼쳤다. 입적하기 직전인 1763년에는 普勸念佛功德主로서 『보권문』 간행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다.⁴¹ 상봉 정원의 3세손인 好隱 有璣(1707~1785)는 『신편보권문』 간행을 주도했다. 이 책은 밀양 영은사의 覺醒이 어머니 현씨의 극락왕생을 위해 표충사 총섭을 맡았던 호은 유기에게 의뢰해 간행되었다. 신편이란 말 그대로 동화사본에 蓮宗寶鑑, 歸元直指, 淨土直指, 淨土寶書, 龍舒集, 彌陀懺 등을 추가하여 새로운 내용과 체제로 구성했다.

『보권문』은 서문에 “王子成의 念佛懺罪 十三文을 지어 여러 사람에게 염불하기 권하였다”는 내용처럼 이 경전은 『예념미타도량참법』을 모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언문과 한문의 체제로 보아 실질적인 모본은 虛應 普雨(1507~1565)의 『勸念要錄』이다. 『권념요록』은 王郎返魂傳을 비롯한 11편의 왕생담, 觀法, 引證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왕랑반혼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예념미타도량참법』에서 차용했다.⁴² ‘十六觀經 修持法門’으로 시작되는 관법은 『관경』의 제9불관, 제10관음

⁴⁰ 김영배·정우영·김무봉 편저, 『念佛普勸文의 國語學的 研究』(동악어문학회, 1996).

⁴¹ 김중진, 「〈회심가〉의 컨텍스트와 작가론적 전망」, 『韓國詩歌研究』23(2007), pp.315-353; 이종수, 「18세기 기성쾌선의 念佛門 연구- 念佛門의 禪敎 껴안기」, 『보조사상』30(2008), pp.144-176.

⁴² 한태식, 「虛應堂普雨禪師의 『勸念要錄』 연구」, 『한국불교학』53(2009), pp.99-135.

관, 제11세지관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흥미롭게 『권염요록』의 관법에서 아미타불,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이 강조되는 점이 조선 전기에 십육관변상도에서 16관상이 점차 사라지고 아미타설법회와 구품이 강조되는 양상과 비슷하다.

『권염요록』에 근간을 두고 후대에 간행된 『보권문』에서는 九品에 대한 내용이 증가했다. 용문사판을 살펴보면, 서두에 ‘極樂世界七寶池中有九品上三品中三品下三品是爲九品也, 中三品, 下上品’이란 14관, 15관, 16관이 등장했으며, 『讚佛偈』에서는 ‘四十八願度衆生 九品咸令登彼岸’, 『阿彌陀佛讚』에서는 ‘極樂世界寶池中 九品蓮花如車輪’, 그리고 「촉의십념」에서는 아미타불을 ‘구품도승’로 칭했다. 또한 「나옹화상서왕가」에서는 “극락세계 들어가니 (중략) 구품연대에 넘볼소리 찾아 있고”라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또한 수도사판에서는 구품왕생을 주창한 善導 화상의 「臨終正念訣」과 “십육관경의 넘볼노씨 부모를 효양하리”는 내용이 담긴 「父母孝養文」이 추가되는 등 『관경』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처럼 18세기에 간행된 『보권문』에 담겨진 구품왕생 신앙은 조선 전기에 이어 아미타설법회와 구품 장면으로 구성된 목각아미타구품회도와 염불왕생첩경도가 제작되는데 신앙적 근간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보권문』과 관련해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에 그려진 용선접인 도상에 대해 되돌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 전기 이후 제작된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에 그려진 용선접인 도상은 전승이란 측면에서 해석되어왔다. 그러나 18세기 중엽에 용선접인 도상이 갑자기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보권문』의 「나옹화상서왕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용문사판에 처음 등장한 이 歌詞에는 “번뇌심을 베어버리고 지혜로 배를 만들어 삼계바다 건너리라 염불중생 실어두고 삼승 집 때 일승 돛을 달아 건너지어 극락세계 들어가니 칠보금지에 칠보망을 돌렸으니 구경하기 더욱 좋아 구품연대에 넘볼소리 찾아있고 청학백학과 앵무공작과 금봉청봉 하나이니 염불일세”라는 구절이 있다.⁴³ 이 내용은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에서 용선에 염불인을 태우고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장면과 칠보지의 구품연대에 앉아 있는 염불인, 그리고 칠보누각 주변을 나는 극락조의 표현 등과 거의 일치하여 18세기 경상도에서 활발하게 간행되었던 『보권문』과 관련성을 짐작하게 한다.

18세기 후반 명대 《관경변상도》의 16관상을 차용해 새로운 형식으로 화면을 구성한 〈직지사 극락세계구품회도〉 역시 경상도에서 형성되었던 16관의 구품왕생과 염불수행을 신앙적 바탕으로 삼고 있다. 이 불화에서는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전

⁴³ 김영배·정우영·김무봉 편저, 앞의 책(1996), pp.71-76.

반에 조성된 십육관변상도 계열 불화에서는 볼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日觀의 재등장이다. 일관은 16관상의 시작을 상징하며 나머지 15관을 총괄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⁴⁴ 고려 말 조선 초 십육관변상도 이후 사라졌던 일관이 극락세계구품회도에 다시 그려졌다는 것은 형식의 변화만이 아니라 수행관의 변화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으로 이어온 『보권문』의 내용이 줄어들고 다른 정도 서적의 내용을 추가해 편집한 『신편보권문』에서 이미 나타났다. 비록 『신편보권문』에는 일관에 관한 내용은 없지만 호은 유기는 서방극락세계구품연지를 16觀禪이라 피력할 정도로 구품왕생을 선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관의 개념은 상봉 정원의 문도는 아니지만 청허 휴정의 遠孫인 白坡 巨旻(1767~1852)의 『修禪結社文』(1822, 운문사 저술)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참선수행자를 위한 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염불을 잘 헤아려 수심할 것을 권한다(料揀念佛結勸修)”라는 항목을 마련하여 염불수행을 설명했다.⁴⁵ 또한 부록인 「念佛要旨」에서는 “불설장침의 16관 중 日沒觀과 三種正觀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염불요지」에서 일물관과 삼중정관을 自性觀이라 설명했고, 서쪽을 향해 앉아 삼중정업을 세우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西向坐는 일물관과 연관되어 있다.⁴⁶ 이는 일물관이 있어야 삼중정업이 성립됨을 뜻한다. 일물관의 중요성에 대한 환기는 구품왕생의 결과론적 염불수행만이 아니라 수행의 시작을 함께 중시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행관의 변화는 극락세계구품회도에 일관이 등장하는 것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대승사와 용문사 <목각아미타구품회도>, <은혜사 염불왕생첩경도>, <직지사 심적암 극락세계구품회도> 등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경상도에서 제작

⁴⁴ 일관의 중요성은 관상수행을 위해 십육관변상도를 조성했던 북송대부터 형성되었다. 元照는 『觀無量壽佛經義疏』에서 1관이 나머지 15관을 총괄했다고 보았다. 이승희, 앞의 글(2011), pp.76-77.

⁴⁵ 백파공선, 김호귀 옮김, 『修禪結社文』(백파사상연구소, 2012).

⁴⁶ “佛說懺經十六觀之中有日沒觀及三種正觀願諸行者念佛作法次西向坐立三種正觀……自性觀名曰念佛是即日沒觀(空觀)三種正觀(有觀)乃至千萬觀心理即一也……既以日沒觀三種觀爲眞空妙有之自性觀”, 『修禪結社文』, 「太古和尚示樂庵居士念佛要旨」, 『韓國佛教全書』第10(1987), p.551.

된 십육관변상도 계열 불화의 전승, 변화 양상, 신앙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대승사 목각아미타구품회도>(1675)와 <용문사 목각아미타구품회도>(1648)는 아미타설법회와 구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형식은 조선 전기에 개관된 <불명산 권수정업왕생첩경도>(1571)에서 연원했다. 18세기 후반에 조성된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1750)와 <직지사 극락세계구품회도>(1778)는 이전 형식과 다르게 16관상이 표현되었다. 도상의 변화는 明代 『관경』에 실린 변상도에서 비롯되었다.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는 이전부터 전승된 정도 이미지에 명대 《관경변상도》의 제4관, 제7관, 제12관 등을 결합시켰으며, 조선 전기부터 전승되어 온 용선접인 도상과 명대 《관경변상도》의 제14관의 상품상생 도상을 함께 표현했다. <직지사 극락세계구품회도>는 명대 《관경변상도》의 제1日觀을 비롯해 제4관, 제7관, 제8관, 제9관, 제10관, 제11관, 제12관, 제14관, 제15관, 제16관 등을 차용해 화면을 새롭게 구성했다. 19세기에는 <직지사 극락세계구품회도>를 모본 삼아 구품도가 제작되어 여러 사찰에 봉안되었다.

경상북도에서 십육관경변상도 계열의 불화가 조선 후기에 연속적으로 제작되었던 이유는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승려 문중과 관련이 있다. 17세기 후반 경상북도와 쌍계사에서 활동한 昭影 神鏡은 조각승 端應과 卓密에게 쌍계사에 이안된 <영원사 왕생첩경도>(1640)와 유사한 형태로 목각아미타구품회도의 제작을 의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소영 신경은 수행에 정진했으며 그의 은사인 寂菴 義天은 觀心修行을 행했다. 이들의 행적으로 보아 淨業修行용으로 제작된 왕생첩경도와 마찬가지로 목각아미타구품회도 역시 조선 후기에 성행한 念佛禪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16관의 구품왕생을 통한 염불선의 수행은 18세기 경상도에서 4차례에 걸쳐 간행되었던 『보권문』을 기반으로 그 신앙적 전통이 지속되었다. 『보권문』이 경상도에서 간행되는 데 관여한 인물은 상원 정원을 비롯하여 그의 문도인 기성 패선, 호은 유기 등이다. 『보권문』은 전시대에 간행된 『권불요록』보다 『관경』의 구품왕생이 비중있게 서술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목각아미타구품도, 염불왕생첩경도, 극락세계구품도 등 아미타설법회와 구품왕생을 주제로 한 불화가 제작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나옹화상서왕가」와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의 용선접인 장면의 유사함에서 알 수 있듯이 구성과 표현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직지사 극락세계구품회도>에 등장한 일관과 『보권문』의 관련성은 정확히 밝히지 못했으나 『신편보권문』이 간행에서 알 수 있듯이 18세기 후반 전통적인 염불관에 변화가 나타난다. 일관과 관련된 염불관은 후대 자료이지만 백파공선이 저술한 『수행결사

문』의 일몰관과 연결해 유추해 보았다. 본 글에서 부족한 부분과 19세기 후반 전라도에서 제작된 구품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로 보완하고자 한다.

주제어 keywords

觀經十六觀變相圖 Illustration of the Sixteen Contemplations of the Sutra on the Contemplation of on the Buddha of Immeasurable life, 阿彌陀淨土佛畫 the pure land Buddhist painting, 念佛禪 Chanting Buddha mindfulness while meditating, 九品往生 nine grades of rebirth in the Western Paradise, 念佛普勸文 the Universal Recommendation for Chanting Buddha Mindfulness

투고일 2013년 2월 25일 | 심사일 2013년 3월 25일 | 게재확정일 2013년 4월 1일

사료

- 『韓國佛教全書 *Hangukbulgyojense*』7~10冊,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Seoul: Dongguk University press, 1986~1987.
- 炯竣 編 Hyengjun, eds., 『海東佛祖源流 *Haedongbuljowonru*』常·樂·我·淨, 서울: 佛書普及社 Seoul: Bulseobogybsa, 1979.

논저

- 김종진 Kim, Jongjin, 「〈회심가〉의 컨텍스트와 작가론적 전망 Study on the Context of 〈Whoe Shim Ga〉(回心歌) and it's Author」, 『韓國詩歌研究 *Hanguksigayeongu*』23, 2007.
- 김영배·정우영·김무봉 Kim, Yongbae·Jeong, Wyong·Kim, Mubong, 『念佛普勸文의 國語學的 研究 *A Korean Linguistic Study Yeombulbogyewonmun*』, 1996.
- 문용호 Mun, Yongho, 「朝鮮時代 阿彌陀淨土圖 研究 A Study on Amitabha Pure Land Paintings in Joseon period」,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Diss. for the master's degree of Dongguk University, 2011.
- 박도화 Park, dowha, 「朝鮮時代 佛教版畫의 樣式과 刻手 The Styles and Woodcutters of Buddhist Woodcut Print in the Joseon Dynasty」, 『講座美術史 (The) *Misulsa: The Art History Journal*』29, 2007.
- 심주완 Shim, Joowan, 「용문사 목불상의 작품과 그 영향 The Idiom and Influence of the Wooden Buddhist Image at Yongmunsa Temple in Late Joseon Period」, 『講座美術史 (The) *Misulsa: The Art History Journal*』26, 2006.
- 이민형 Lee, Minhyong, 「17세기 후반의 彫刻僧 端應과 卓密의 불상 연구 A Study on Buddhist Statues of Daneung and Takmil School in the late 17th century」,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Diss. for the master's degree of Hongik University, 2009.
- 이승희 Lee, Seunghye, 「高麗後期 淨土 佛教繪畫의 研究: 天台·華嚴 신앙의 요소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Pure Land Buddhist painting of the late Goryeo dynasty: with a focus on elements of Cheontae and Hwaecom Buddhism」,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Diss. for the Ph.D. degree of Hongik University, 2011.
- 이종문 Yi, Chongmun, 「朝鮮後期 後佛木刻幀 研究 A Study of the Wooden Relief Panels Placed Behind the Buddhist Images of the Late Choseon

- Period」, 『美術史學研究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209, 1996.
- 이종수 Lee, Jongsu, 「18세기 기성쾌선의 念佛門 연구: 念佛門의 禪敎 硏안기 A Study on Chanting Buddhism of Kiseong Kueseon: Comprehension of Zen Buddhism and Non-Zen Buddhism in Chanting Buddhism」, 『보조사상 *Bojosasang*』30, 2008.
- 유마리 Lyu, Mari, 「朝鮮後期 觀經十六觀變相圖-觀經變相圖의 연구(Ⅱ) A Study on the Buddhist Paintings of the Paradise of Amitabha in the last half of the Chosŏn Dynasty」, 『佛教美術 *Bulgyomisul*』12, 1994.
- 유마리 Lyu, Mari, 「麗末鮮初 觀經十六觀變相圖-觀經變相圖의 硏究Ⅳ A Study on the Korean Buddhist Paintings of the Paradise of Amitabha in the 14th-15th Century」, 『美術史學研究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208, 1995.
- 유마리 Lyu, Mari, 「조선후기 木刻幀에 나타난 극락구품 연구 Study on the Paradise of Amitabha Presented in the Amitabha Wooden Wall Sculptures in the Late Joseon Period」, 『講座美術史 (*The*) *Misulsa: The Art History Journal*』28, 2007.
- 정우택 Chung, Woothak, 「來迎寺 阿彌陀淨土圖 Amatabha Painting of Raeyoungsa Temple in Japan」, 『佛教美術 *Bulgyomisul*』12, 1994.
- 정우택 Chung, Woothak, 「銀河寺 舊藏 龍船接引圖 The Painting of Ban-Ya-Yong-Sun Owned by Enha Temple」, 『考古歷史學誌 *Journal of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Studies*』16, 2000.
- 최경원 Choi, Kyungwon, 「조선헌 전기 불교회화에 보이는 ‘接引龍船’ 도상의 淵源 The Iconographic Source of the Salvific Dragon Boat Seen in Buddhist Paintings of the Early Joseon Dynasty(1392~1592)」, 『미술사연구 *Misulsayeongu*』25, 2011.

The Illustration of the Sixteen Contemplations of the Contemplation Sutra at Gyeongsang Province in the Late Joseon Dynasty

Lee, Yongyun

This study examines the iconographic development and transmission, and the religious characteristics of *Illustrations of the Sixteen Contemplations of the Sutra of the Contemplation on the Buddha of Immeasurable Life* (觀無量壽經十六觀變相圖) produced in the Gyeongsang province region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The late 17th century *Wooden Reliefs of the Nine Grades of Rebirth in the Amitabha Pure Land* (木刻阿彌陀九品會圖, hereafter *The Relief of the Nine Grades*) from Daeseungsa temple (1675) and Yongmunsa temple (1684) are composed both Buddha Amitabha's preaching and the nine grades of rebirth. This iconography originated from the woodblock print of *The Shortcut Rebirth in the Pure Land by Encouraging to Practice the Pure Karma* (勸修淨業往生捷徑圖, hereafter *The Shortcut by Pure Karma*) first-printed in the early Joseon period at a monastery in Bulmyeongsan mountain.

The late 18th century Pure Land paintings, *The Painting of the Shortcut to the Rebirth in the Pure Land by Chanting Buddha Mindfulness* (念佛往生捷徑圖, 1750, hereafter *The Shortcut to the Rebirth by Chanting*) at Eunhae sa temple and *The Painting of the Nine Grades of Rebirth in the Land of Ultimate Bliss* (極樂世界九品會圖, 1778, hereafter *The Painting of the Nine Grades*) from of Jikjisa temple, represented more complete illustrations of the Sixteen Contemplations than the 17th century *The Reliefs of the Nine Grades*. The new pictorial form and iconography have their origin in *the Frontispiece of the Sutra of the*

Contemplation on the Buddha of Immeasurable Life of the Ming dynasty, China. *The Shortcut by Chanting* at Eunhae-sa incorporated the illustrations of the fourth, seventh, twelfth, and fourteenth contemplations of the Ming *Frontispiece* into the traditional iconography of the Illustration of the sixteen contemplations. It also introduced the iconography of the 'Welcoming Dragon Boat' and the new illustration of the fourteenth contemplation, 'Upper Class and Upper Life'. *The Painting of the Nine Grades* of Jikjisa temple adopted the illustrations of first, fourth, seventh, eighth, ninth, tenth, eleventh, twelfth, fourteenth, fifteenth, and sixteenth contemplation from the Ming *Frontispiece* and constructed a new composition of the painting.

The thriving production of *The Illustrations of the Sixteen Contemplations* at Gyeongsang province in the late Joseon period is related to the religious practice of a monk lineage active in the region. Soyeong Singyeong, who practiced around Gyeongsang province in the late 17th and was a disciple of Hwanjeok Uicheon from the famous Cheongheo Hyujeong is believed to have commissioned the sculptor-monks Daneung and Takmil to produce *The Relief of the Nine Grades* for Ssanggyesa temple in Gyeongsangnam-do modeled on *The Woodblock Print of the Shortcut to the Rebirth by Pure Karma* which was removed from Yeongwonsa temple to the collection of Ssanggyesa temple. Following his master's practice of mind contemplation, His practical concentration on meditation leads to assume that the Ssanggyesa temple *The Relief of the Nine Grades* was produced to aid the practice of chanting Buddha mindfulness while meditating (yeombul seon), which was a popular practice in the late Joseon Buddhism, as *The Reliefs of the Nine Grades of Rebirth* in Daeseungsa temple and Yongmunsa temple were for the practice of pure karma. The tradition of the combined practice of chanting and meditation continued through the late Joseon dynasty by means of *The Universal Recommendation for Chanting Buddha Mindfulness*, a well-received Pure Land writing that was re-printed four times during the 18th century in the Gyeongsang region. The reprints of the book in the region were made by Sangbong Jeongwon and his disciples, Giseong Kwaeseon and Hoeun Yugi.